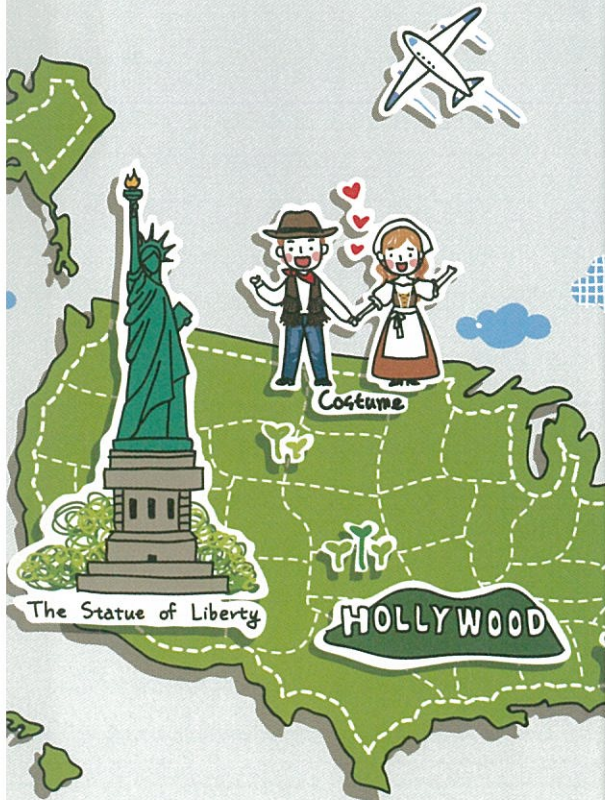




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

# 美 보건복지부, 신종 발암물질 4종 추가



미국 보건당국이 취급과 보관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신종 발암 물질을 발표해 전 세계 안전보건 관련 기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.

미 보건사회복지부(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)는 지난 10월 2일 13차 발암물질 보고서(the 13th Report on Carcinogens)를 통해 신종 발암물질 4종을 발표했다. 그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.

## ■ 오르토틸루이딘

이번에 가장 먼저 발암물질로 언급된 오르토틸루이딘은 합성 고무 제품이나 살충제 및 염색약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. 오르토틸루이딘은 1983년부터 발암가능물질로 포함되었으며 올해 초 유럽지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미용사의 체내 오르토틸루이딘 레벨이 염색약이나 펄 약품에 노출되는 빈도와 연관이 있다.

## ■ 1-브로모프로판

1-브로모프로판은 클리닝 용제나 스프레이 접착제로 사용된다. 불에 타는 무색 액체이고, 클로로포름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. 과거에는 도료 박리제와 농약 등으로 사용됐지만 현재는 이런 용도에는 대부분 사용이 금지되었다. 미국에서는 1987년 발암성이 지적됐다.

## ■ 큐멘

큐멘 증기를 들이마신 쥐에게는 폐암 및 간암이 발생한다고 한다. 가솔린 비슷한 냄새가 나는 가연성 액체로 코올타르와 석유, 그리고 담배 연기에서도 나온다. 주로 아세톤과 페놀을 만드는데 사용된다.

## ■ 펜타클로로페놀

전봇대와 말뚝, 그리고 울타리를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펜타클로로페놀은 쥐에게 간암 및 기타 기관의 암을 발생시킨다.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이 물질에 노출될 경우 비호지킨림프종(non-Hodgkin lymphoma)이라는 혈액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혀졌다.